

## 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

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소개한 「서울 우이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저출산·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가 우리사회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. 인구감소는 영유아수와 학령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교사정원, 유아시설 규모도 감축·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, 향후 교·보육계 역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
- 특히 제 지역구인 강북은 출생률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영유아의 교·보육을 담당하는 일선 유치원, 어린이집이 벌써부터 상당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, 낮은 충원률로 폐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실제 강북구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.647명으로,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며, 전년도 대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이에 따라 강북구에 소재한 국공립·민간어린이집의 충원율은 85% 불과한 실정이며, 강북구 사립·병설·법인 유치원의 충원율 역시 76.15%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, 강북구에 176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86억 원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며, 관련 절차를 거쳐 6~7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
- 어린이집, 유치원 등 기존 유아시설을 통해 영유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인프라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, 신설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의 영유아에게만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이 제공되는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이에 강북구 우이유치원의 착공은 보류하고, 관련 예산을 통해 강북구 영유아, 취학 아동들이 보다 보편적인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